

“여름방학 반납, 대학생들의 AI·로봇 개발 도전기”

GIST, AI 창의융합경진대회 9회째 개최

- AI 융합기술 분야 인재 육성 위해 매년 개최... 9개 대학 학부생 24명, 여름방학 두 달간 GIST 캠퍼스에서 탁구 로봇 개발(트랙 1) 및 AI 자율 프로젝트 수행(트랙 2)
- 창의·융합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실험·실습·재료비·연습 공간·기숙사 지원하며 실증형 융합인재 발굴... 연세대·경희대 연합팀과 GIST팀, 트랙별 대상 수상



▲ GIST '2025 AI 창의융합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한 자리에 모여 탁구 로봇과 인공지능(AI) 자율프로젝트 개발에 도전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AI융합학과(학과장 김종원) 주관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된 '2025년 제9회 GIST AI 창의융합경진대회'의 시상식을 8월 21일(목) 개최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지능로봇, 가상환경,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인재 발굴을 목표로 2017년 시작해 올해 9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월 GIST의 학사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AI대학원'과 '융합기술학제학부'가 통합하여 신설된 'AI융합학과'가 주관을 맡으면서, 대회 명칭도 '창의 융합경진대회'에서 'AI 창의융합경진대회'로 변경되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6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열렸으며, ▲트랙1: 탁구 로봇 콘테스트와 올해 새로 도입된 ▲트랙2: AI 창의융합 자율프로젝트 콘테스트 두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국내 9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부생 24명이 9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GIST에 상주하며 AI융합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 멘토의 지도를 받아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GIST는 학생들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험·실습, 재료비, 연습 공간, 기숙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대회의 결승전은 8월 18일(월)에 열렸으며, 시상식은 8월 21일(목) 오후 2시 다산빌딩 109호에서 진행됐다. 총 6개 팀이 수상했으며, 대상팀에는 상장과 상금(탁구 로봇: 180만 원, AI 창의융합: 90만 원)이 수여됐다.

트랙1: 탁구 로봇 콘테스트에서는 탁구 머신에서 발사되는 공을 로봇이 받아내거나, 참가 학생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뤘다.

대상은 연세대·경희대 연합팀 '유정현 탁구로봇'팀(연세대 유정현·김민건·김가현, 경희대 황보겸)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GIST 학생팀 '이삭 토스트(ISAAC toast)'팀(하준민·박서휘·이진형)이 수상했다.



▲ GIST AI융합학과 주관 '2025 AI 창의융합경진대회'의 탁구 로봇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삭 토스트(ISAAC toast)' 팀이 탁구로봇과 연습 경기를 하고 있다.

트랙2: AI 창의융합 자율프로젝트 콘테스트에서는 자유 주제를 정해 한 달간 각 멘토 교수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팀 피이(Team P.E.)'팀(GIST 박재형·엄태준), 최우수상은 '트리플 에스(SSS)급 CYOA*, LLM* 시스템을 장착하다'팀(GIST 이윤상·성균관대 김민재)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디지털 트리오(Digital Trio)'팀(성균관대 박세빈·홍성필), 장려상은 '슬램덩크(SLAM DUNK)'팀(성균관대 최정우·권민성)에게 돌아갔다.



▲ GIST AI융합학과 주관 '2025 AI 창의융합경진대회'의 AI 창의융합 자율프로젝트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슬램덩크(SLAM DUNK)' 팀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 **CYOA:** 'Choose Your Own Adventure'의 줄임말로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모험'이라는 의미다. 주로 게임·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쓰인다.

* **LLM:**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트랙2) AI 창의융합 자율프로젝트 콘테스트 대상팀 '팀 피이(Team P.E.)'의 **박재형 학생**은 "비·안개·어두운 환경 등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의 3차원 복원 기술에 도전했다"며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설계, 검증, 성능 개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AI융합학과 김종원 학과장은 "올해 대회에서는 데이터(D)-네트워킹(N)-인공지능(A) 구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로봇)와 AI 모델, 디지털 트윈을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AI기반 디지털 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증형 융합인재를 발굴하는 실험적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GIST AI융합학과 주관 '2025 AI 창의융합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김종원 학과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